

##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 따른 창의성 평가의 차이\* - 암묵적 이론을 이용한 자기평가 및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 -

표 정 민

최 인 수<sup>†</sup>

성균관대학교

한국인들 스스로는 본인의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진 문화적 성향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하위집단 별로 창의성의 암묵적 이론에 대한 자기평가 및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을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 수평/수직문화 차원을 보완한 Singelis의(1995)의 척도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집단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의 네 요인으로 문화적 성향이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네 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은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 개성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저개성 그룹, 경쟁심은 낮으나 개성이 강한 저경쟁/고개성 그룹, 마지막으로 집단주의는 낮고 경쟁심, 개성, 독립적 개인주의가 다 높은 자기 확신 그룹이다. 실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하위 집단은 본 연구 대상의 1/4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문화적 성향으로 구분한 네 집단 간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집단주의가 높은 그룹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주의를 가진 동양인들이 자기겸양편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인성에 대한 자기평가는 집단주의가 높은 그룹에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의 의미와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창의성 평가, 문화적 성향(문화적 자아관), 암묵적 이론, 잠재집단분석, 자기 및 타인평가

\* 본 논문은 표정민(2014)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 최인수,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1007호

Tel: 02-760-0530, E-mail: koreativity@gmail.com

창의성은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이며, 여러 분야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개념이다(최인수, 2011). 창의성의 필수불가결한 영역인 예술과 과학 영역 이외에도 교육과 정치, 경제, 경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성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창의·인성교육은 한국 공교육의 기초로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조학교 개설과 창조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원과 학생의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문용린, 최인수, 2010). 또한 창의실용정부, 창의시정, 창의행정, 창조정치 등과 같이 창의성과 결합된 새로운 정치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배소라, 2012년, 10월 30일자; 변미리, 2008; 최인수, 2011), 창조경제, 창의경제, 창조국가, 창조도시와 같은 신조어들이 경제 및 문화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김도원, 2012년, 10월 21일자; 김정호, 2013). 최근 국내 기업들은 인재 선발 시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스스로 창의적인 기업이 되고자 저마다 창의경영, 창조경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준, 길종구, 2004).

21세기가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창의성 또는 창의적 잠재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4).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일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창의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여러 대중 매체들에선 한국인은 창의성이 부족하여 이를 증진시켜야 할 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김태훈, 2013년, 6월 10일자; 박건현, 2013년, 4월 4일자; 배영찬, 2010년, 10월 13일자; 윤샘이나, 2012년, 6월 15일자; 조쇼아 코프만, 2008년, 3월 12일자; 코리아 데일리, 2009년, 5월 12일자), 수많은 외국인 명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인의 창의성 평가를 부탁하고 그들이 던지는 한국인의 창의성 부족에 대한 한마디를 대서특필하고 있다(김신성, 2007년, 7월 16일자; 박우규, 2008년, 9월 13일자; 안미현, 2006년, 12월 16일자). 즉 우리사회의 여론을 주도해가는 대표적 언론에서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웅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해외석학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한국의 창의성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사젠티 교수는 국산 핸드폰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조선일보, 2013년, 3월 22일자). 또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인의 창의성은 오랜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으며, 딜립 다스는 1960년대부터 40여년 만에 놀라운 성취를 이룬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주장하였다(YTN, 2013년, 10월 13일자). 구글의 에릭슈미트 회장과 DDB 월드와이드 회장인 키스 라인하드도 한국인은 창의성을 타고났으며, 뛰어난 창의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한국경제, 2011년, 11월 8일자; 한국경제매거진, 2013년, 5월) 최근 들어 한국 또는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해외

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창의성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양극단의 평가, 즉 우리의 과소평가와 외국인의 과대평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사실에 기반을 둔 평가인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인의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시사한 변인들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Hofstede(2001)는 유교적 문화권인 동양의 세 국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와 수직적인 위계체계 때문에 창의성의 수용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의 개방적이지 못한 즉 비관용적 태도 때문에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송치웅, 장성일, 2010). Ng(2003)는 아시아의 집단주의적 특성 즉 갈등회피, 복종, 사회적 규범, 존중 등의 특성이 서양에 비해서 창의성의 발현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한기순과 유경훈(2013)은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이 진정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사람을 거부하는 반창의성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반창의성 편향은 안정을 추구하고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문화는 위계적이고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고 수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로 표현하자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창의성의 발현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살펴볼 점은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설에서 현재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나 대중매체에서 언급하는 “한국인은 창의성이 낮다, 비창의적이다”라는 평가를 일반인들도 내리고 있는지 탐색해볼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인들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한국인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처음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점은 한국인의 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기존의 서양에서 제시되어온 비교문화 연구들은 동양을 대표하는 세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로 언급해 왔다(Cahoone, 1996; Hofstede,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Ng(2003)은 중국과 호주 대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Hamamura(2012)의 최근 연구에서 일본의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20-30대의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류승아, 2009, 2010; 박현경, 이영희, 2004; 한규석, 신수진, 1999). 문윤희와 한기순(2010)은 현재 한국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패러다임을 현대의 한국인들에게 적용시켜 한국을 집단주의 문화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

다고 언급하였다.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변화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경제의 발전이 개인주의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이다(Hofstede, 2001; Inglehart, 1998; Ralston, Egri, Casado, Fu & Wagaenheim, 2009). 한국 사회는 1960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한국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증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여러 사회문화적 변화를 동시에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의 시대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70년대의 경제개발,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민주주의 활성화, 올림픽 개최 등을 통한 급속한 세계화, 90년대의 IMF 외환위기, 2000년대의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 여러 사회문화적 사건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상이했던 시대를 경험한 세대에 따른 문화적 성향은 서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급격한 개혁개방을 경험한 중국의 성인들과 안정적인 사회문화속에서 생활해온 일본 성인들의 문화적 성향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연구(Egri, Khilji, Ralston, Palmer, Girson, Milton, Richards, Ramburuth & Mockaitis, 2012)들은 이러한 예측을 지지해준다.

한 국가의 문화적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며(Steel & Taras, 2010; Tung & Verbeke, 2010), 따라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연령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

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한 10대부터 50대 이상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을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문화적 성향을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지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비교문화연구에서 기본적인 틀로 제시되어 온 개념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개념이다(Cahoone, 1996; Hofstead,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 하지만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같은 이분법적 문화 분류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즉,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어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봤을 때, 두 국가를 동일한 문화라고 설명하기는 힘들다(최상진, 1993). 또한 미국과 스웨덴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분명한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Triandis, 1995). 따라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분류는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적 결과자료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2요인 척도는 낮은 신뢰도를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문화 분류의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어왔다(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Singelis와 Triandis, Bhawuk, 그리고 Gelfand(1995)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문화 분류에 수평-수직의 차원을 도입하여 확장시킨 4요인 개념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평적(horizontal) 문화에서는 지위(status)에 대한 상하 개념이 없고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equality)을 강조하고 있다. 수평-개인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오스트레일리아를 예시로 들고 있고, 수

평-집단주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예시로 들고 있다. 수직적(vertical) 문화에서는 지위(status)의 상하가 분명하고 지위에 따른 편익이 존재한다. 수직-집단주의의 예시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중국을 제시하였으며, 수직-개인주의로는 능력에 따라 직위를 얻을 수 있고 경쟁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이기 때문에 위계적(수직적)이고 상호협조적인 집단주의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2008; 오현숙, 민병배, 2008). 하지만 빠른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김양희, 2013). 따라서 이러한 혼재된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한국인 개인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독립성과 평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쟁적이고 위계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수평-수직의 개념을 포함한 문화적 성향 척도(Singelis et al., 1995)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한 여러 연령대의 한국인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김기범(1996)이 처음으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네 개의 요인(수평-개인주의, 수직-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수평-개인주의)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김기범(1996)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의 전 연령대를 통하여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구성개념이 타당한지 살펴본 후 한국인이 가진 창의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문화적 성향과 평가의 경향성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과 함께 한국인들이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자신의 능력평가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봐왔다. 기존 연구 결과들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olvin, Block & Furder, 1995; Farh, Dobbins, & Cheng, 1991; Harris & Schaubroeck, 1988; Morris & Peng, 1994; Ross, 1977; Thornton, 1980).

자세히 살펴보면 서구에서는 자신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에서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약하게 나오거나,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고 제시되어왔다(Heine & Hamamura, 200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Morris & Peng, 1994). 또한 타인 평가에서도 서구문화는 타인의 수행에 대하여 성격이나 특성, 또는 능력과 같은 내적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외적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Leung, Bond, De Carrasquel, Munoz, Hernandez, Murakami & Yamaguchi, 2002; Meijer & Semin, 1998; Miller & Ross, 1975; Morris & Peng, 1994; Ross, 1977).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지만, 창의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해보는다면 창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창의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내/외부 귀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수평과 수직의 문화적 성향과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연구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측면에서 수평적 문화와 수직적 문화에 대한 언급은 창의성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Rogers(1959: 최인수, 2011에서 재인용)는 창의성의 발현 조건으로 자유로움을 제시하였으며, Brunside와 Amabile, 그리고 Grysiewicz(1988)도 창의성 발현을 위한 분위기로써 자유(freedom)를 제시하였다. Ekvall(1996)은 창의적 환경 척도에서 이러한 자유를 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동등함이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에서 창의성의 발현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평적 문화적 성향은 자신과 타인의 창의성 평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위계적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전통과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문화에서는 창의성의 발현이 어려울 수 있다(전경원, 2006). 또한 타인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직위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경쟁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Breen, 2004). 최인수(2011)는 이러한 위계적 풍토가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기에 타인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직적 문화성향은 창의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적 성향과 내집단 및 외집단 평가

창의성에 대한 타인평가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문화적 성향에 따라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평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며, 성원들이 동일한 집단의 범주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를 의미한다(한덕웅, 2002). Tajfel과 Turner(1979)는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있다고 믿는 집단을 내집단이라 하고, 내집단 외부의 구성원을 외집단이라고 범주화한다고 제시하였다.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한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상황과의 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집단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Triandis, 1989;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였다(Gomez, Kirkman, & Shapiro, 2000).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포함시키며,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

여 강한 내집단의 정체감을 갖는다(Triandis, 1989;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따라서 타인을 평가할 때에도 내집단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Gomez, Kirkman, & Shapiro, 2000).

하지만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매체들은 내집단인 한국인의 창의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면 류충호(2004)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집단을 외집단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집단 심리 이론인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나 자민족중심주의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인의 내집단 비하 현상이라 정의하였으며,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내집단의 부정적 정보를 자주 접해왔기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인의 내집단 비하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극히 드물게 실시되어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은(1987)은 전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50대 이상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사대주의와 자기 비하 성향을 조사했는데, 이러한 부정적 성향들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기비하성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류충호(2004)는 내집단 비하 현상이 내집단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을 때, 자신을 분리시켜 집단의 동일시는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높인다는 상황적 대처 기제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언론처럼 스스로의 창의적 잠재성을 폄하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

들에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 평가와 함께 내집단인 한국인과 외집단인 외국인을 평가 할 때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타인 평가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름을 제시한 후, 같은 수의 창의적 특성을 무작위로 배치하고 그 사람의 창의성을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이름을 제시한 평가와 외국인의 이름을 제시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문화적 성향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과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창의성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을 통하여 창의성 평가의 경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창의성 평가의 기준(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하나의 사회나 문화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창의성의 정의나 창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암묵적 이론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Sternberg, 1985), 이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성개념이다(Kelly, 1955). 또한 암묵적 이론은 개인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며, 이러한 영향력과 함께 개인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성되고 구조화 되는 틀이다(Romo & Alfonso, 2003). 이렇게 구성된 암묵적 이론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한 개념의 이상적인 모습, 즉, 원형(prototype)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원형은 자기와 타인의 행동, 모습, 그리고 산물 등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어 사용하게 된다(Neisser, 1979; Sternberg, 1983, 1985; Sternberg, Conway, Kerton, & Berstein, 1981).

즉, 일반인들이 창의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기준인 암묵적 이론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함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Rudowicz와 Hui(1997)는 미국인과 중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Yuc와 Rudowicz(2002)는 같은 중국 문화권인 베이징과 광저우, 타이베이와 홍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그리고 한윤영(2007)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을 비교하여 차이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여러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최인수, 윤지운, 2013; 최인수, 이진희, 표정민, 2013; 최인수, 전요한, 표정민,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최인수와 표정민(2014)이 개발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를 이용하여 자기평가와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것

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여러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을 Singelis와 동료들(1995)이 제시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김기범(1996)의 연구결과에서 타당도를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에 대한 타당화를 실시할 것이다. 만약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를 높일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 연령대의 한국인 중에서 유사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할 것이다. 잠재집단분석은 관심 변인의 하위 변인 점수들을 이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적합도에 근거하여 적절한 집단의 수를 도출하는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McLachlan & Basford, 1988). 이 방법은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이 유사한 집단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성향의 잠재 집단별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10대부터 50대 이상의 연령대로 층화(stratified)하여 조사를 하였



으며 누적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연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세 대학교(S대, S여대, K대)의 대학생 중에서 연구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2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연구 조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연구 조사자 1명당 연령대별(10대~50대 이상)로 2부 이상씩, 최소 10부씩을 조사해 오도록 하였다.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들을 조사해왔으며, 종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완성하였다. 초기에 선정된 25명의 연구조사자들은 다시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해주고 연구 조사자로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본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었으며, 본 연구자는 유선을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연구 조사자로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설문지를 전달하여 10부 이상을 조사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조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조사자에 참여한 인원은 73명이었으며, 1인당 10부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952부를 수거하였다. 각 척도별 무응답 문항이 있는 응답지 36부를 제

거하였으며, 또한 척도별 응답의 표준편차가 .3이하인 응답지와 연령이 16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피험자의 응답지 92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824부였다.

연령대를 구분할 때, 10대는 발달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너무 크고, 또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전의 학생들에게 조사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10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60대 이상의 피험자는 연령대를 나누기에 부족한 인원이 조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7~59세로 선정하였다. 연령별 부수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는 Singelis와 동료들(199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한국에서 김기범(1996)에 의해 번역되고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32개 문항

표 1. 연구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연령대	M	SD	남성	여성	n
10대	17.40	.88	78 (41.1%)	112 (58.9%)	190
20대	23.28	2.94	73 (37.1%)	124 (62.9%)	197
30대	33.54	2.73	77 (51.0%)	74 (49.0%)	151
40대	45.40	2.67	45 (32.8%)	92 (67.2%)	137
50대	54.16	3.76	71 (47.7%)	78 (52.3%)	149
합계	33.07	13.89	344	480	824

으로써, 네 개의 하위요인인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Collectivism),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Collectiv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Individualism),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Individualism)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나타내며, 7점 척도(1: 강한 부정 - 7: 강한 긍정)로 제작되었다. Singelis의(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척도 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수평적 집단주의 .74, 수직적 집단주의 .68, 수평적 개인주의가 .67, 수직적 개인주의가 .7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후 사용하였다.

#### 창의성 자기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 자기 평가 척도는 한국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최인수, 표정민, 2014)를 이용하여 자신의 창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국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는 개인이 생각하는 가장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와 요인은 7요인, 42문항으로 암묵적 이론 척도와 동일하며, 자기평가에서 나타난 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자신감 및 내적동기 .80, 개방성 및 독창성 .92, 리더십 .84, 용기 및 추진력 .81, 도덕적 인성 .78, 유머감각 및 매력 .78, 전문성 및 독립성 .5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 창의성 타인(한국인/외국인) 평가 척도

암묵적 지식이 타인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7요인으로 구성된 한국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최인수, 표정민, 2014)의 문항을 이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제시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리커트 9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한국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앞에서 밝혔으며, 각 문항이 국적 별 가상인물들에게 한 번씩 들어가도록 제작하였다. 한 인물의 특성으로 7개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문항의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이 방법은 Sternberg(1985)와 Lim과 Plucker(2001)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에서 암묵적 이론을 이용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가상 추천서(letters of recommendation)'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암묵적 이론이 타인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밝힐 때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은 제시된 사람의 이름에 한국인과 외국인 이름을 추가한 점이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성별을 포함한 이름만 사용한 점과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 평가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기에 기존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명의 가상 인물과 특성을 제시할 것이며, 6명은 한국인, 6명은 서양인의 이름으로 제작하였다. 성별에 따른 편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을 같이 이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인용하기 위해 신용평가사 NCIS에서 2012년에 조사한

- 아래의 사람들의 창의성 정도를 평가해 주세요.

(1) 김영수 개성이 뚜렷하다 / 새로운 것을 만든다 / 자존심이 강하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 호기심이 많다 / 이야기꾼이다 /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매우 창의적이다			
1	2	3	4	5	6	7	8	9

한국의 가장 흔한 이름을 이용하였다. 외국인의 이름은 창의성의 비교문화연구에서 동양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국가인 미국인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미국인이 이름은 1990년 미국 인구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이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국적을 밝히지는 않았다. 실제 문항의 예시는 위와 같다.

점수의 평가는 응답자가 평정한 점수(1-9점)와 가상인물의 특성으로 제시한 요인별 특성의 개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응답자가 만약 7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개방성 및 독창성 요인 특성이 4개(개성이 뚜렷하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많다)가 들어가 있기에 개방성 및 독창성 점수는 7x4로 28점이 된다. 또한 도덕적 인성(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유머감각 및 매력(이야기꾼이다), 전문성 및 독립성(자존심이 강하다)이 각각 1문항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요인 별로 7점을 곱하여 도덕적 인성 점수 7점, 유머감각 및 매력 7점, 전문성 및 독립성 7점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6명의 가상인물에 대한 점수를 더하여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 문항의 개수(자신감 및 내적동기 4문항, 개방성 및 독창성 13문항, 리더십 3문항, 용기 및 추진력 6

문항, 도덕적 인성 7문항, 유머감각 및 매력 4문항, 전문성 및 독립성 5문항)로 나누어주면 최종 점수가 도출된다. 이렇게 총 한국인 6명의 평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한국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도출하였으며, 외국인 6명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여 외국인에 대한 평가 점수를 계상하였다. 본 척도는 9점 척도로 평균을 계산하였지만 추후 자신과 타인의 암묵적 이론과 비교할 때에는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인의 이름과 외국인의 이름의 순서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A형과 B형으로 두 가지 종류를 제작하였다. 제시한 인물의 특성은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며, 다만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름의 순서만 A형과 B형을 바꿨다. 즉, A형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한국인의 이름을 제시하고 7번부터 12번까지 외국인의 이름을 제시하였으며, B형은 1번부터 6번까지 외국인의 이름을 제시하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한국인의 이름을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무작위로 하였으며, A형과 B형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평가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하

위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 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살펴보고, 하위집단별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4 단계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이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Mplus 6.0(Muthen & Muthen, 1998)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전 분석에서 나타난 문화적 성향 점수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프로그램은 Mplus 6.0이었다. 적합도 수치와 집단 비율을 통하여 몇 개의 하위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가 문화적 성향 하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적 성향 집단 별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점수간의 변량분석( $F$ -test)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문화적 성향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는 기존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이분법적 문화 구분을 보다 세분화시켜 수직과 수평의 차원을 포함하는 척도로서 Singelis 외(199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기범(1996)에 의해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기범(199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4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전체연령별 자료를 통하여 요인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해보았다.

Singelis와 동료들이 제시한 4요인은 수평적-집단주의, 수직적-집단주의, 수평적-개인주의, 수직적-개인주의였으며, 각 요인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이다. 모형의 합치도를 살펴보았을 때, TLI .713, CFI .735로 매우 낮은 합치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김기범(199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Singelis와 동료들이 개발한 4요인의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는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요인구조를 다시 탐색하여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 요인을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전체 상관행렬을 통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 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수직-개인주의의 20번 문항인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이 -.05에서 .2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수직-개인주의의 다른 7문항과의 상관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이 .077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를 제거하였다. 다른 문항으로는 수직-집단주의의 25번 문항인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문항 또한 같은 요인의 문항들과 상관이 .105, .136, .169 등으로 낮게 나타났기에 이를 제거하였다.

두 번째로 앞서 두 문항을 제거하고 남은 30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공통분 추정치는 다중상관제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으로 하였으며, SAS 9.1의 Proc Factor 절차를 통하여 고유치(eigenvalue)를 산출하였다. 스크리 도표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로 3요인을 넘어가면서 고유치가 평준화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요인 이후에는 고유치가 1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 3, 4요인으로 잠정 설정하여 Mplus 7.0으로 공통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행렬 분해 시 기준이 되는 차이함수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함수로는 GEOM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합치도 지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chi^2$ 값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표본의 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합치도 지수를 참고하여 모형을 선정하였다. 2요인 모형의 경우 TLI와 CFI가 .662, .7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요인 모형은 제외하고 3요인과 4요인 모형을 살펴본 결과로는 요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

치도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요인의 경우 TLI와 CFI가 .8에 가깝게 나타났다. 요인 구조를 살펴본 결과로는 3요인과 4요인 모형에서 모두 집단주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구조를 나타냈으나, 두 모형의 차이는 3요인 모형의 경우 수평-개인주의, 수직-개인주의 요인과 함께 3요인을 나타냈고, 4요인의 경우 수평-개인주의가 두 요인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로는 수평-개인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적인 성향과 개성적 성향이 둘로 나뉘어 볼 수 있었다.

3요인 모형의 TLI가 .739로 너무 낮게 나타남으로써 여러 요인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문항들을 제거하여 TLI를 높인다 하여도 적절한 합치도인 .90까지 증가하기 어렵기에 4요인을 선택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해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수평-개인주의에 나누어진 두 요인(독립적 성향, 개성적 성향)은 문화적 성향을 구분할 때의 적절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4요인 모형을 채택하여 추후 문항을 편집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요인에 부하량이 .3 이상인 문항 8개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회전된 4요인 행렬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최종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수평-개인주의의 26번 문

표 2.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에 대한 2요인~4요인 모형의 합치도

모형	$\chi^2$	df	$\Delta\chi^2$	$\Delta df$	RMSEA	TLI	CFI
2요인 모형	2489.063	376			.083	.662	.708
3요인 모형	1885.318	348	603.745***	28	.073	.739	.792
4요인 모형	1415.714	321	469.604***	27	.064	.795	.849

\*\*\*  $p < .001$  수준에서 유의



정도의 수치로 볼 수 있으며, RMSEA의 경우 적절한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종 요인 명칭은 1요인을 집단주의 성향, 2요인을 경쟁적 개인주의, 3요인은 개성강조 개인주의, 4요인은 독립적 개인주의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에서 수직, 수평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반면에 수평-개인주의를 독립적 성향과 개성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성향 요인을 재명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 문화적 성향 요인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어떠한 문화적 성향 요인(집단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나, 경쟁적 개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 또는 경쟁적 개인주의와 개성강조 개인주의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 등을 구분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의 편향성을 제거하여 네 가지 문화적 성향 요인(집단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 별로 어떠한 요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집단을 다시 구분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반응 편향성 제거를 위한 절차는 김상률과 조길호, 그리고 이수형(1994)이 제시한 개인 차원에서 자료의 표준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수준에서 관련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2) 각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다시 표준편차로 나눈다.

3) 2)에서 만들어진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 척도의 22문항을 개인 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 문항에서 평균을 뺀 값에 표준편차로 나눔으로써 개인 내 표준화를 완료하였다. 이 후 표준화된 값을 이용하여 문화적 성향 요인 점수 평균을 구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잠재집단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들이다.

모형의 합치도인 AIC와 BIC를 확인해본 결과 2개 집단 모형부터 5개 집단 모형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 변화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AIC의 경우 2집단과 3집단의 차이는 179.468, 3집단과 4집단의 차이는 186.645, 4집단과 5집단의 차이는 118.416으로 3집단과 4집단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IC의 경우 2집단과 3집단의 차이는 155.897, 3집단과 4집단의 차이는 163.074, 4집단과 5집단의 차이는 94.845로 역시 3집단과 4집단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를 살펴보면 2집단이 .654, 3집단이 785, 4집단이 747, 5집단이 .770으로 나타났다. 3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5집단, 4집단, 그리고 2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형 합치도는 하위집단이 하나 적은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LMR-LRT를 살펴보면 2~4집단 모형은 모두 이전 모형보다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p < .001$ ), 5집단의 경우 유의수준이 .37로 이전 모형과 차이가 없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BLRT의 경우 모든 모형이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모형의 하위집단별 최대 비율과 최소 비율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하위 집단 수가 2개인 모형은 구 집단이 합쳐서 100%가 나와야 하기에 52%, 48%로 나누어졌다. 다음으로 최대비율과 최소비율에 차이가 없는 모형으로는 4개 하위집단을 가진 모형이 최대비율 30%, 최소비율 14%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형보다 최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하위 집단의 최소비율은 9%, 5개

하위요인의 최소비율은 7%로 낮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AIC와 BIC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모형은 4개 하위집단을 가진 모형이었으며, 또한 LMR-LRT에서도 4집단까지 이전 모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의 경우 4개 집단의 지수가 3집단 모형과 5집단 모형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모형의 집단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3집단과 5집단의 최소비율이 9%, 7%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4개집단의 하위집단 비율이 14%로 높게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의

표 4. 개인 내 표준화된 문화적 성향 평균을 이용한 잠재집단 분석의 하위집단별 합치도 최대/최소 비율  
N=824

하위집단 수	모형 적합도					최대/최소 집단 피험자 비율
	AIC	BIC	Entropy	LMR-LRT ( $p$ -값)	BLRT ( $p$ -값)	
2개	4636.556	4697.840	.654	.0***	.0***	52%/48%
3개	4457.088	4541.943	.785	.0***	.0***	55%/ 9%
4개	4270.443	4378.869	.747	.0***	.0***	30%/14%
5개	4152.027	4284.024	.770	.37	.0***	30%/ 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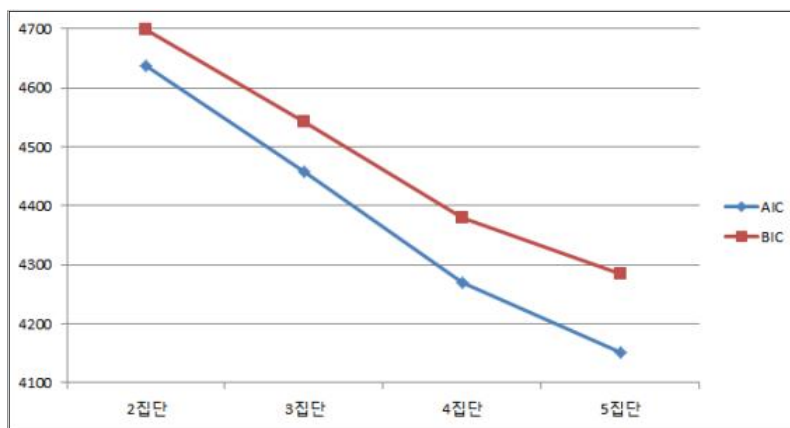


그림 1.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와 BIC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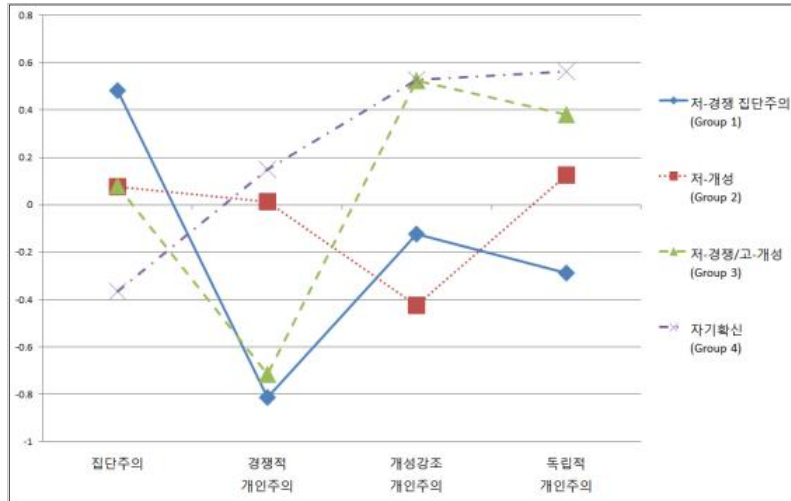


그림 2. 잠재계층별 문화적 성향 요인 추정평균에 따른 형태

하위집단이 있는 잠재집단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4개의 하위 집단별 문화적 성향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분류된 4개의 하위집단의 잠재계층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제시한 문화적 성향의 평균은 추정하여 나타난 점수이며, 이 점수로 인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하위집단을 명명하였다.

####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Group 1)

첫 번째 하위집단은 전체 824명 중 228명(27.7%)이 속해 있으며, 문화적 성향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요인 점수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적 개인주의 점수는 -.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성강조 개인주의는 -.12, 독립적 개인주의는 -.29로 나타났다. 본 집단의 요인 중 경쟁적 개인주의는 현저하게 낮고 집단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 저-개성 그룹(Group 2)

두 번째 하위집단은 824명 중 238명(28.9%)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 성향 점수는 개성강조 개인주의 점수가 -.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 점수들은 집단주의 .08, 경쟁적 개인주의 .01, 독립적 개인주의 .1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의 특징들은 개성강조 개인주의가 낮고, 다른 요인들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집단의 명칭으로 '저-개성 그룹'이라고 하였다.

#### 저-경쟁/고-개성 그룹(Group 3)

세 번째 집단은 824명 중 246명(29.9%)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로 구성되었다. 요인별 평균 점수는 집단주의 .08, 경쟁적 개인주의 -.71, 개성강조 개인주의 .52, 독립적 개인주의가 .38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게 나타난 점은 상대적으로 경쟁적 개인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개성강조 개인주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의 명칭을 '저-경쟁/고-개성 그룹'으로 명명하

표 5. 문화적 성향 집단별 장의성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N=824)

장의성 척도 하위요인	지-경쟁 집단주의( $n=228$ )				지-개성( $n=238$ )				지-경쟁/고-개성 ( $n=246$ )				자기확신( $n=112$ )		
	자기 평가	타인 (한국)	타인 (외국)	F (Scheffe)	자기 평가	타인 (한국)	타인 (외국)	F (Scheffe)	자기 평가	타인 (한국)	타인 (외국)	F (Scheffe)	자기 평가	타인 (외국)	F (Scheffe)
자신감 및 내적동기	4.96	4.74	4.81	3.45* B<A	4.76	4.82	4.92	1.97	5.02	4.76	4.84	4.78** B<A	5.18	4.78	6.59** BC<A
개방성 및 독창성	4.38	4.93	5.04	45.0*** A<BC	4.43	4.95	5.01	34.33*** A<BC	4.77	4.98	5.07	7.39** A<BC	5.00	4.96	1.75
리더십	4.42	4.87	4.97	21.44*** A<BC	4.45	4.97	5.01	23.88*** A<BC	4.50	4.90	5.00	16.99*** A<BC	4.74	4.90	.74
용기 및 추진력	4.29	4.87	4.98	43.76*** A<BC	4.45	4.96	5.02	31.92*** A<BC	4.48	4.92	4.97	22.22*** A<BC	4.70	4.86	.84
도덕적 인성	5.01	4.84	4.96	2.63	4.83	4.93	4.97	1.67	4.85	4.91	4.99	1.56	4.59	4.90	3.06* A<C
유머감각 및 매력	4.56	4.81	4.94	9.35*** A<BC	4.29	4.88	4.94	32.22*** A<BC	4.62	4.89	4.97	8.52*** A<BC	4.49	4.80	2.33
진문성 및 독립성	4.13	4.60	4.72	31.56*** A<BC	4.39	4.71	4.80	15.21*** A<BC	4.46	4.67	4.79	8.23*** A<BC	4.70	4.68	.52

A: 자기평가 B: 타인평가(한국인) C: 타인평가(외국인)

였다.

**자기확신(고-경쟁/고-개성/고-독립) 그룹<sup>1)</sup>(Group 4)**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824명 중 112명 (13.6%)이 포함된 집단이며,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점수는 -.36, 경쟁적 개인주의의 .15, 개성강조 개인주의의 .53, 독립적 개인주의의 .56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쟁적 개인주의와 개성강조 개인주의, 그리고 독립적 개인주의 요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경쟁/고-개성/고-독립 그룹으로 명명해야 하나 너무 길고 복잡한 관계로 의미를 살려 본 집단의 명칭을 ‘자기확신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별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의 차이**

문화적 성향 집단별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 그리고 타인평가(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평가점수와 사후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감 및 내적 동기 요인에서 저-개성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과 저-경쟁/고-개성 그룹에서는 자기 평가가 타인평가(한국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F_{(2, 681)} = 2.87, p < .05$ ;  $F_{(2, 735)} = 4.78, p < .01$ ). 자기확신 그룹에서는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에 비해 자기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_{(2, 333)} = 6.59, p < .01$ ).

1) 고-경쟁/고-개성/고-독립 그룹은 이후 자기확신 그룹으로 줄여서 제시함.

개방성 및 독창성, 리더십, 용기 및 추진력, 유머감각 및 매력, 전문성 및 독립성 요인에서 저-경쟁집단주의 그룹과 저-개성 그룹, 저-경쟁/고-개성 그룹 모두에서 자기평가보다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확신 그룹에서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인성 요인에서는 다른 요인과는 다르게 저-경쟁집단 그룹과 저-개성 그룹, 저-경쟁/고-개성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확신 그룹에서는 자기평가보다 타인평가(외국인)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_{(2, 333)} = 2.63, p < .05$ ).

외국인에 대한 평가가 한국인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진 문화적 성향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하위집단 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함께 자기평가 및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각 연구 결과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을 Singelis외(1995)의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본 척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김기범(1996)은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분석을 통한 문항의 재구성, 요인 구조에 대한 재탐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참고하여 수평-수직 문화적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평 집단주의와 수직 집단주의의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면서 집단주의라는 요인이 되었다.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수직-개인주의의 8개의 문항 가운데 경쟁과 관련된 5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를 경쟁적 개인주의라 명명하였다. 기존의 수평-개인주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문항씩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으로 재구조화 되었는데 이를 각각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의 네 요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한국에서 집단주의는 수평과 수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수직-집단주의(예: 중국, 인도의 카스트 제도) 문항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수평-집단주의(예: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나누는 것을 즐긴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서양 학자들의 관점에서 집단주의가 위계적인 질서의 차이가 있어 수평-집단주의와 수직-집단주의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적 가설이지 실제 다른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민과 동료들(2009)은 서양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문화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음으로 수직-개인주의의 문항에 포함된 특성들은 경쟁적 성향으로 지각되었으며, 수평-개인주의 요인은 자신이 남과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과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느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특성 두 가지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Cahoon(1996)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독특성과 독자성이라고 언급하였고, Markus와 Kitayama(1991)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아의 개념은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함과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자아의 개념은 독특함과 독립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한국에서는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즉,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수평-개인주의 요인에는 개인의 독특함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한 요인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독특함과 독립성은 서로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인에게 있어 집단주의는 수직/수평의 차원으로 나뉘지 않았고, 개인주의는 개성적인 특성과 독립적인 특성으로 나뉘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반응편향을 제거한 후, 네 개의 문화적 성향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 개성강조 개인주의 요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되는 저 개성 그룹, 저경쟁/고개성 그룹, 그리고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자기확신 그룹이 그 것이다. 즉 집단주의와 함께 경쟁적 성향과 개성적 성향을 포함

하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성을 지닌 구성 집단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ingelis의(1995)가 개인-집단주의에 수평-수직의 축을 중첩시키려고 한 의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수평-수직의 개념은 지위(status)의 평등함 또는 위계적 체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수평-수직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지만 경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집단이 구분되었다는 점은 Singelis의(1995)의 생각과 꽤를 같이 한다.

그러나 Triandis(1988)와 Singelis의(1995)가 제시했던 동양은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본 연구결과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하위집단은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 하나였으며, 이 그룹에 포함된 구성원의 비율은 약 25%, 즉, 본 연구 대상자의 1/4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 연구들(Cahoone, 1996; Hofstede,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이분법적 문화 구분(개인주의/집단주의)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성향으로 구분한 집단 간 창의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 피험자 중에서 13.6%를 차지하는 자기확신 그룹에서만 자기평가가 타인(한국인/외국인)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오히려 자신감 및 내적동기에서 타인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도덕적 인성에서만 타인평가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개성 그룹에서는 자신의 평가가 대부분의 타인평가(한국인/외국인)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덕적 인성에서는 타인평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경쟁 집단주의 그룹과 저-경쟁/고-개성 그룹에서는 자신감 및 내적동기 요인만 타인(한국인/외국인)보다 자신의 평가를 더 높게 하였고, 다른 요인들에서는 타인 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서술했던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이야기하는 자기겸양편향(Heine & Hamamura, 2007;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이 자기확신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확신 그룹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낮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서구문화에서 스스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었다(Colvin, Block & Furder, 1995; Farh, Dobbins, & Cheng, 1991). 또한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 그룹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는 모습은 집단주의를 가진 동양인들이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Heine & Hamamura, 2007;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

이러한 결과들은 동양의 집단주의를 대표하던 일본의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다는 Hamamura(2012)의 연구와 한국의 젊은 연령층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류승아, 2009, 2010; 박현경, 이영희, 2004; 한규석, 신수진, 1999)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창의성 평가의 하위 요인인 도덕적 인성점수의 집단별 비교결과는 흥미롭다. 도덕적 인성점수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그룹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자기확신그룹은 타인에 비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덕적 인성은 겸손함과 정직,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등이 포함되어 있는 요인이다. 중국인과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연구에서 Yue와 Bender, Cheung(2011)은 집단주의에 속하는 중국인들이 독일인보다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Yue(2003)는 중국인들이 창의적인 사람을 사회적인 변화를 꾀하고 국가적 혁신을 이룬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공헌 편향(meritorious bias)을 가지고 있다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성환(2011)이 농촌지역의 높은 연령의 사람들은 정치인을 창의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룹의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창의성의 도덕적 함의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집단별로 창의성의 요인에 따라서 자기겸양 효과와 자기고양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은, 추후 보다 정교한 실험을 통하여 문화적 성향이 자신과 타인의 창의성 평가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절 효과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모든 집단에서 외국인에 대한 평가가 한국인보다 후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 언론에서 보이는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 절하의 태도가 단순히 미디어의 입장이 아닌 한국인 스스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연구 결과 중 류충호(2004)가 제시한 한국인의 자민족 비하와 홍일식(1996)과 김대환(1993)이 제시한 열등의식, 김재은(1987)이 제시한 문화적 사대성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실험에 참가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창의성은 높다고 주장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자는 것도 또는 낮다고 평가하여 자괴심을 자극해 보자는 것도 그 목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기 전에 한국인의 창의적 잠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4). Davis(1999)는 스스로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의성의 발현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최인수(2011)는 한국인이 스스로의 창의성을 ‘없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앗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창의적 잠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창의성에 대

한 부정적인 평가를 지속한다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알아가는 꼴이 된다.

한국의 창의성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밝힌 창의성 지수에서 한국이 OECD 15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인 1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다름 아닌 ‘관용지수’가 최하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기술지수’나 ‘과학재능지수’는 상위권에 속해있었지만,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여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즉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어떠한 점이 창의적인지 고려하여 부족한 점은 과감한 혁파를 해야 하고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제한점은 서양에서 개발된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문화적 성향을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비교문화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하여 Singelis(1995)와 Triandis(1988)의 개인-집단주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자체가 다른 비교문화연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시선에서 범주화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한 4가지 요인의 적합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타인평가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기법의 문제이다. 창의성 암묵적 이론 척도 문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가상의 인물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창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암묵적 척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문항들은 창의적 인물을 떠올리며 작성한 특성들이므로 긍정적인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평가 점수는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 문항을 제시하거나 부정적 특성을 제시하여 타인 평가 점수의 분산을 높이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성향(개인-집단주의)과의 연구를 위해서는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맥락을 같이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금주 (2008). 20대 심리학: 미래의 나를 완성해주는 20대를 위한 인생강의. 서울: 랜덤하우스 코리아.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대환 (1993). 한국인의 자기발견. 서울: 김영사.
- 김도원 (2012. 10. 21). “창조·공정·혁신. 경제정책 차이점은?”. YTN. [http://www.ytn.co.kr/\\_ln/0101\\_201210210602249492](http://www.ytn.co.kr/_ln/0101_201210210602249492)에서 검색.
- 김성환 (2011).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지역과 세

- 대별 인식차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성 (2007. 7. 16). 美 평론가 “한국 영화 위기는 창의성 부족 탓”.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7/15/20070715000094.html>에서 검색.
- 김양희 (2013).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 집단과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재은 (1987).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 총서 12: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호 (2013).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219-240.
- 김 준, 길종구 (2004). 창의력 계발과 창조적 경영. 삼영사.
- 김태훈 (2013. 6. 10) 과학고 → 명문대 → 대기업...이공계 인재 획일화된 진로 벗어나자.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005601>에서 검색.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25.
-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 류충호 (2004). 한국사회의 내집단 비하연상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문용린, 최인수 (2010). 창의·인성교육의 총론.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심포지움, 10, 21-29.
- 문윤희, 한기순 (2010).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0(2), 395-426.
- 박건현 (2013. 4. 4). 남의 기술 따라 말고 남의 성공 좇지 마라 그게 창의, 창조경제.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4002013>에서 검색.
- 박우규 (2008. 9. 13). 출산을 높일 수 없다면 이민을 받아들이세요.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2/200809120066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2/2008091200663.html)에서 검색.
-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4), 571-596.
- 배소라 (2012. 10. 30).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10653>에서 검색.
- 배영찬 (2010. 10. 13). 엄마 품에 큰 ‘수재’들, 영원히 노벨상 못 받는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3/201010130196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3/2010101301964.html)에서 검색.
- 변미리 (2008). 서울의 창의시정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PR-04.
-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운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365-391.
- 송치웅, 장성일 (2010). 창의성 지수(Creativie index)측정을 통한 창의 역량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16-2.
- 안미현 (2006. 12. 16). 한국 창의성 부족... 혁신 제품 없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216019016>



- 에서 검색
- 오현숙, 민병배 (2008).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7-407.
- 윤샘이나 (2012. 6. 15). 한국 교육도 K팝처럼 붐 일으킬 수 있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5029037>에서 검색.
- 전경원 (2006).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학문사.
- 조선일보 (2013. 3. 22). 한국 휴대폰 꺼내든 사전트 “보라, 자유경쟁이 낳은 창의적 산물을”.
- 조슈아 코프만 (2008. 3. 12). 한국인 창의성 너무 부족. *대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38738>에서 검색.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한국인의 심정 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1993(3), 3-21.
-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쌤앤파커스.
- 최인수, 윤지운 (2013).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대학생의 암묵적 지식 비교 연구: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과 지각된 창의적 성향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3(2), 159-183.
- 최인수, 이건희, 표정민 (2013). 창의적 인물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 비교. *영재교육연구*, 23(4), 615-632.
- 최인수, 전요한, 표정민 (2013).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연구 -ACL-CPS를 사용하여-. *아시아교육연구*, 14(3), 319-344.
-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27-47.
- 코리아 데일리 (2009. 5. 12). “기본 부족하고 창의력 부족”... 한국 다녀온 미국 교사가 본 한국 교육.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7&branch=NEWS&source=&category=education&art\\_id=1476872](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7&branch=NEWS&source=&category=education&art_id=1476872)에서 검색.
- 한국경제 (2011. 11. 8). 에릭 슈미트 “한국인은 창의성을 타고 났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087051r>에서 검색.
- 한국경제매거진 (2013. 5). 키스라인하드 DDB 월드와이드 회장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내는 법”.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3&nkey=2013052100096071502&mode=sub\\_view](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3&nkey=2013052100096071502&mode=sub_view)에서 검색.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4). 엉뚱한 생각. 학지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기순, 유경훈 (2013). ‘피로사회’ 속 창의성과 행복에 관한 담론. *창의력교육연구*, 3(1), 55-68.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

- 울: 정신세계사.
- YTN (2013. 10. 13). 외국 학자들이 본 ‘한류’. 한국 창조성의 근원은?. [http://www.ytn.co.kr/\\_ln/0101\\_201310131003279884](http://www.ytn.co.kr/_ln/0101_201310131003279884)에서 검색.
- Breen, B. (2004). The 6 myths of creativity. *Fast Company*, 89, 75.
- Burnside, R. M., Amabile, T. M., & Grysiewicz, S. S. (1988). Assessing organizational climates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Methodological review of large company audits. *New directions in creative and innovative management: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169-185.
- Cahoon, N. (1996). *History of the Western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Davis, G. A. (1999). *Creativity is forever*.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Egri, C. P., Khilji, S. E., Ralston, D. A., Palmer, I., Girson, I., Milton, L., ... & Mockaitis, A. (2012). Do Anglo countries still form a values cluster? Evidence of the complexity of value change. *Journal of World Business*, 47(2), 267-276.
- Ekvall, G. (1996). Organizational climat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1), 105-123.
- Farh, J. L., Dobbins, G. H., & Cheng, B. S.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a comparison of self ratings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1).
- Gómez, C., Kirkman, B. L., & Shapiro, D. L. (2000). The impact of collectivism and in-group/out-group membership on the evaluation generosity of team memb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097-1106.
-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 Harris, M. M., & Schaubroeck, J. (1988). A meta analysis of self supervisor, self peer, and peer supervisor ratings. *Personnel Psychology*, 41(1), 43-62.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
-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Inglehart, R. (1998).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
- Leung, K., Bond, M. H., De Carrasquel, S. R., Munoz, C., Hernandez, M., Murakami, F., & Yamaguchi, S. (2002). Social axioms: The search for universal dimensions of general beliefs about how the world func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Lachlan, G. J., & Basford, K. E. (1988). *Mixture Models: inference and Application to clustering*. Marcel Dekker, New York.
- Meijer, Z. Y., & Semin, G. R. (1998). *When the self-serving bias does not serve the self: Attributions of success and failure in cultural perspective*. Free University Amsterdam.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2), 213.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
- Muthen, L. K., & Muthen, B. O. (1998).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Mplus User's guide*, 1998-2012.
- Neisser, U. (1979).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3(3), 217-227.
- Ng, A. K. (2003). A cultural model of creative and conforming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2-3), 223-233.
- Ralston, D. A., Egri, C. P., Casado, T., Fu, P., & Wangenheim, F. (2009). The impact of life stage and societal culture on subordinate influence ethics: a study of Brazil, China, Germany, and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5(4), 374-386.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 Romo, M., & Alfonso, V. (2003). Implicit theories of Spanish painter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 409-415.
- Ross, S. B. (1977). On the mode of action of central stimulatory agents. *Acta Pharmacologica et Toxicologica*, 41(4), 392-396.
- Rudowicz, E. & Hui, A. (1997). The creative personality: Hong Kong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39-157.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teel, P. & Taras, V. (2010). Culture an a consequence: A Multi-level multivariate meta-analysis of effects of individual and country characteristics on work-related cultural valu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6, 211-233.
- Stemberg, R. J. (1983). Components of human intelligence. *Cognition*, 15, 1-48.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 Stem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kata, T. (1999). Development process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 Japanese culture: Cross-cultural and cross-sectional analyse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7(4), 480-489.
- Thornton, G. C. (1980). Psychometric properties of self-appraisals of job performance. *Personal Psychology*, 33, 263-27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McGraw-Hill Book Company.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 view Press.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06.
- Tung, R. L. & Verbeke, A. (2010). Beyond Hofstede and GLOBE: Improving the quality of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 1259, 1274.
- Yue, X. D. & Rudowicz, E. (2002). Perception of the most creative Chinese by undergraduates in Beijing, Guangzhou, Hong Kong, and Taipei.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2), 88-104.
- Yue, X. D. (2003). Meritorious evaluation bias: how chinese undergraduates perceive and evaluate chines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7(3). 151-177.
- Yue, X. D. (2011), Bender, M., & Cheung, C. K.(2011). Who are the best-known national nad foreign creators? A comparative study among undergraduates in China and German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5, 23-27.
- 1차원고접수 : 2014.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18.

## **Comparative Study of Self and Other(in-group/out-group) Evaluation of Creativity among Latent Classes of Self-Construal in Korea: Using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Jungmin Pyo**

**In Soo Choe**

Sungky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endency of creativity evaluation on self and others (Koreans/foreigners) based on latent classes by self-construal. Implicit theory was used as th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and evaluation on others(Koreans/foreign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24 Koreans ranging from teens to 50s. First, in order to confirm if self-construal factors suggested by Singelis et al.(1995) appear in identical constructs among Korean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Vertical and horizontal-collectivism were turned out to be one factor of collectivism, vertical-individualism was interpreted as competitive individualism, and horizontal-individualism was divided into individualism emphasizing uniqueness and independent individualism.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n latent classes using four factors of adjusted self-construals provided 4 groups, which were low-competitive collectivism group(27.7%), low-uniqueness group(28.9%), low-competitive/high-uniqueness(29.9%) and self-conviction (high-competitive/high-uniqueness/high-independent) group(13.6%). Lastly, the self-conviction group tends to evaluate his/her creativity as higher than, or similar to, that of other people.

*Key words* : *creativity, cultural orientation(self-construal),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latent class analysis, self-other evaluation*